

수년째 방치 '광주시노인회관' 우범지대 전략 우려

남구 서동 소재...40여년 사용 후 3년 전 신축·이전으로 공실 '중증장애인 시설' 예산 미확보 등에 무산...市 "활용방안 검토"

“늦은 시간 건물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리면 깜짝 놀라요. 담장이 낮아서 아이들이 쉽게 드나드는 것 같더라고요. 인근 주민들은 대책이 필요하다고들 말하죠.”

광주 남구 서동에 위치한 전 광주시 노인회관이 수년째 방치되며 학생들의 탈선 등 우범지대로 전략할 우려가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남구 제중로 92 소재 건물은 지난 1981년 7월 10일 사용 승인된 노유자(老幼者) 시설로, 노인회관으로 사용된다. 노후로 인한 안전 및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돼 2021년 4월 서구 치평동에 신축·이전하면서 현재는 공실 상태다.

앞서 광주시는 2020년 6월 발생한 '발달장애인 모자 사망 사건' 이후 전국 최초로 최중증발달장애인 돌봄사업을 전

개해 왔는데, 해당 건물을 최중증발달장애인 융합지원센터로 사용하기 위해 2022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했다.

하지만 기존 사업이 2022년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을 통해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으로 바뀌게 되면서 건축비 미확보 등의 이유로 사업이 검토 단계에서 끝나 현재까지 미사용 중이다.

문제는 이 건물이 지난 2016년 안전진단 C등급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추가 진단을 받지 않은 데다, 일부가 부서져 있어 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 늦은 시간 학생들이 무단 출입하는 등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오전 찾은 해당 건물은 입구에 약 100cm 높이의 접이식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을 뿐 건물 출입을 금지하는 팻말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26일 광주 남구 제중로 92 소재의 전 광주시노인회관. 수년째 공실 상태로 건물 곳곳의 페인트가 벗겨지고 균열이 가 있으나 일부 학생들이 무단 침입하는 하연 인근에서 어르신들이 게이트를 치기도 해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일고 있다. /주성학 기자

드가 쳐져 있을 뿐 건물 출입을 금지하는 팻말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주변 펜스 일부는 훼손돼 사람의 출입이 자유로운 상황이나 CCTV 등이 없

어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건물 뒤편 역시 일부는 수풀이 우거져 있고, 2·3층 창문 두 개는 방충망이 찢어진 상태이며, 비상계단으로 보이는 곳에는 균열이 가 있었다. 또 시멘트가 부서져 내부 철근이 녹슨 채로 드러나 있기도 했다.

주민 정모(33)씨는 “학생들이 건물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곤 한다”며 “또 어르신들이 게이트를 치기도 하는데,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어쩌나 걱정이 된다. 철거를 하든지, 쓰임새를 찾아 리모델링을 하든지 하루 빨리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시청 내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활용을 검토했으나, 적당한 대안이 나오지 않아 공실로 두고 있다”며 “1~2개월 주기로 점검을 지속하고 있고, 사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며 무단 출입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판 설치도 계획 중이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옛 전남도청 본관에 '5·18 항쟁 서사' 담는다

광주시·복원대책위, 설명회 개최...세부 계획 첫 공개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의 최후 항전지였던 옛 전남도청 복원과 관련 전시 콘텐츠 세부 계획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광주시와 옛 전남도청복원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옛 전남도청 전시(콘텐츠)안 공개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 열린 '착수보고회'에서 전체적인 복원 사업 윤곽이 제시된 이후 7개월여만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추진단), 시공사(우시공테크), 5·18민주화운동 관계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원형 복원' 원칙에 따라 오는 2025년 10월 31일 완공을 목표로 옛 전남도청 본관·별관·회의실, 경찰국 본관·민원실, 상무관 등 6개 동 복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20%다.

본관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검증된 자료를 기반으로 열흘간 항쟁 서사를 전시하며 ▲사무과·시민군상황실 ▲부지사실·시민수습위원회 ▲상공국장실·가피회견실 ▲도지사접견실·유족대표 협상실은 재현 공간으로 조성한다. 그 외 자료가 부족한 5곳은 새로운 콘텐츠로 채워질 계획이다.

시민군의 시신이 수습된 상무관 내부는 상설 추모 공간으로, 그 외 도청 회의실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꾸려진다.

도경찰국 본관은 5·18을 테마로 한 입체영상 콘텐츠, 역사실 등이 조성돼 오월항쟁에 참여한 인물들의 구술 영상이 송출된다. 도청 정문엔 시민군이 타던 지프 차가, 도청 내·외부엔 사망자 추모 표지판 등 외부 전시물이 설치된다.

설명회 중 질의응답 시간에는 퇴직 언론인들이 '언론검열관실' 복원을 요청하기도 했으며, 일부는 전시콘텐츠 공개 전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주성학 기자

우승희 영암군수, 항소심도 벌금 90만원...군수직 유지

지방선거당내 경선에서 이종투표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되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우 군수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우 군수의 아내와 선거사무소 관계자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우 군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당원이 아니라고 답변 뒤 일반 유권자 투표에 참여(이중투표)할 것을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안재영 기자

광주·전남 마약사범 10년새 14배 폭증...작년 740명

광주·전남에서 마약사범이 최근 10년간 큰 폭으로 늘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의원이 26일 공개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이 검거한 마약사범은 2013년 53명에서 지난해 740명으로 10년 만에 약 1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남경찰청이 검거한 마약사범은 86명에서 463명으로 약 5.4배 많아졌다.

전국적으로 최근 10년 사이 연간 마약사범 수는 2013년 5천459명에서 2023년 1만7천817명으로 약 3.3배 늘

었다.

전체 마약사범 가운데 시·도 경찰청 별 검거자 비중은 지난해 기준 광주 42%, 전남 26% 등이었다.

이 의원은 "마약류 범죄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영 기자

심야시간 순천서 10대女 흥기살해 30대 체포

경찰, '묻지마 살인' 가능성 수사...구속영장 신청 방침

심야에 순천 도심에서 여고생을 흥기로 찢어 살해한 30대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경찰서는 26일 흥기를 휘둘러 여고생을 살해한 A(30)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의 한 병원 인근 길거리에서 B(17)양을 흥기로 수차례 찢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크게 다친 B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경찰은 범행 장소 부근 CCTV 영상과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추적했으며, 사건 발생 2시간여만에 범행 장소에서 약 1.5km 떨어진 길가에서 만취 상태로 행인과 다툼을 벌이던 그를 출동한 경찰관이 알아보고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흥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에서 흥기 1점을 발견해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A씨와 B양은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

하는 동네 주민으로 확인됐다.

B양은 당시 친구를 배웅하고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A씨와 피해자의 관계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는지, 범행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순천=양홍렬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 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S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